

문 의	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	과 장 김기범	042-481-5460
		사무관 이원석	042-481-3569
		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세계 5대 특허청 통계 전문가 회의, 한국에서 개최

- 특허 출원 동향 공유 및 지능정보기술 적용 신규 과제 논의 -

특허청(청장 성윤모)은 세계 5대 특허청(이하 ‘IP5’)의 통계 품질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「제6차 IP5 통계 실무그룹 회의」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세계의 약 80% 이상의 출원을 처리하는 IP5 특허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, 일본, 중국,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되며, 전문가 협의체*를 구성해 전 세계 특허 이슈를 이끌고 있다.

* 특허분류 실무그룹(WG1), 정보화 실무그룹(WG2), 심사정책 실무그룹(WG3), 통계 실무그룹(StatWG)

이번 회의에는 IP5 특허청의 통계 분야 실무자,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통계 데이터의 교환과 활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.

특히 올해는 IP5 출범 10주년을 맞아 변화된 지식재산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간의 추진 과제를 평가하고 새로운 과제를 선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회의의 의장국인 우리나라는,

IP5 통계 보고서 발간 등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점검과 함께,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인공지능(Artificial Intelligence)을 활용한 출원규모 예측, 사물인터넷(Internet of Things) 기술 분류체계 의제를 통해 새로운 과제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.

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정책과장은 “이번 회의는 세계 특허통계 표준화 체계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IP5 통계의 지능정보 기술 적용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”라고 밝혔다.



보도자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이원석 사무관에게 연락(☎ 042-481-3569)주시기 바랍니다.